

동일본 대지진 10주기를 맞이하여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10주기를 맞이하여, 희생자분들께 삼가 애도를 표하며, 모든 이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 말씀드립니다.

당시 센다이공항은 지진 발생 70분 뒤에 밀려온 해일로 인해 활주로와 터미널 빌딩 등이 침수 또는 손상되면서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공항에는 이용객, 지역 주민, 공항 스태프 등 약 1,700명이 피난해 있었으며, 라이프 라인이 끊긴 터미널 빌딩 내에 그대로 발이 묶여, 모두가 공항을 벗어나기까지 6일이나 소요되었습니다.

한편, 공항 기능을 복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으나, 미군과 자위대, 미야기현을 비롯한 일본 국내 각지와 해외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지진 발생 한 달 후인 4월 13일에는 임시 항공편이 운항되었으며, 이후 정기 항공편도 순차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센다이공항에 대한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16년 7월, 센다이 공항은 미야기현이 내건 「창조적 부흥」의 일환으로, 국영공항 중 최초로 민영공항이 되었으며, “도호쿠의 하늘을 세계의 하늘로”라는 슬로건 아래, 교류 인구의 확대를 통한 도호쿠 지역 전체의 활성화를 목표로 매진해 왔습니다.

고도의 공익성이 요구되는 공항 운영은 여객기 이착륙 기능과 함께 유사시 재해방지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센다이국제공항은 미야기·도호쿠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함께 공존하는 시설로서 지진 당시의 재해와 교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항의 모든 관계자들과 한마음으로, 더더욱 안전·안심할 수 있는 공항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3월 11일

센다이국제공항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토바 아키토